

한국, 일본 및 러시아로 둘러싸인 바다의 명칭으로 “동해(韓國東海)·일본해(日本西海)” 병기(併記)를

이진명
(프랑스 리옹 3대학 교수)

서양에서의 “Sea of Japan”의 명칭 사용은 한국인에게는 불쾌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Sea of Japan”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본의 소유물 혹은 영해로서의 바다, 혹은 한국인들이 “Sea of Japan (Japan Sea)”의 해안에서 살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동해에 인접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은 1천만명 가량인데 반해, 동해에 인접해서 살고 있는 일본인은 단지 6백만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해에 인접해서 살고 있는 거주민의 다수가 한국인이라는 점과, 그 한국인들이 “East Sea (Tonghae)”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UN과 국제수로국(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과 같은 국제기구들, 지도 제작자, 지리학자, 언론 매체, 일반 대중이, 한반도만을 표현한 지도에서는 “East Sea” (Tonghae)로 표기하는 것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같이 그린 지도에서는 “East Sea - Sea of Japan”처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병기는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세 나라(한국, 일본, 러시아)의 정부 당국들과 지리학계에 의해 더 바람직하고 중립적인 새로운 명칭이 채택될 때까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